

포스트 코비드 19시대, 중국 선교 전망과 전략회의 보고서

남수현 목사(세계선교사역부 부장)

1. 2022년 감리회 A국 선교 현황

▷ A국 선교사 현황

단위/명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국	242	246	232	226	225	199	189	183	170
전체	1,094	1,144	1,188	1,235	1,258	1,279	1,293	1,325	1,337
분포	22.1%	21.5%	19.5%	18.2%	17.8%	15.5%	14.6%	13.8%	12.7%

▷ A국 선교사 전출현황

단위/가정수

Year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사직자	3	7	3	8	12	5	3	2	43
변경자	2	2	2	2	1	10	6	3	28

▷ A국 전출 선교사의 사유 (2014-2021)

번호	사유	가정수
1	국내목회로의 이임	29
2	선교지변경(재배치)	28
3	사역종결 및 포기	5
4	자원 및 공상 은퇴	3
5	자격소멸	6

▷ A국 선교사의 선교지 변경 (2014-2021)

순위	나라명	Unit	사역내용
1	대만	11	현지 목회, 신학교육 및 훈련
2	말레이시아	4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
3	러시아	3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
4	조지아	2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
5	필리핀	2	사역 변경
6	카작흐스탄, 캐나다, 방글라데시	각 1	사역 변경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각 1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

▷ A국 선교사의 체류 현황

구분	국내	A국	제3국
가정수	40	37	7

▷ A국 선교사의 비자 취득 가능성

구분	유	무
가정수	65	19

2. 지표로 본 A국 선교 현황

1) 한국감리교회의 세계선교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반면, A국 선교는 감소,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시진핑 주석 이후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 온 “중국특색 사회주의(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정책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책의 요지는 “중국 내의 모든 것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2월 종교사무조례의 개정을 통해, 종교 활동과 집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제한을 본격화 하면서, 선교사의 대규모 비자발적 철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봄,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면서 지역봉쇄와 사역 중단, 비자 갱신 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며, 예상과는 달리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A국 선교에 대한 예측 불가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 A국 선교의 환경이 날로 악화되면서, 많은 선교사의 경우 국내 목회로 이임하거나, 사역을 포기 또는 종결하는 선교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선교지를 변경하여 선교사역을 지속하려는 선교사의 숫자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A국 선교

사들이 사역 도중 받은 스트레스, 통제와 감시에 대한 피로감, 강제적인 사역 중단에 대한 좌절감 등을 극복하고 다시 선교지로 파송 받을 수 있기에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심리적 부담감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3) A국 선교사의 재배치(선교지변경)에 있어서 언어와 문화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대만이 압도적으로 선호되었으며, 많은 경우 A국 선교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 이민자들과 화교를 접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선교지 변경의 우선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 이전의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 또는 선교지로 재배치되는 경우, 소속교회의 권유, 협력선교사의 적극적인 초대와 안내, 신실한 멘토 동역자의 조력 등을 통해서 성사되었습니다.

3. A국 선교사의 다음 선택지

1) 국내 목회로의 이임 가능성

구분	임지	비고
①	부담임교역자	주로 40대 이하의 젊은 선교사, 교구 및 중국어예배 담당 겸임
②	담임교역자	소규모 미자립, 농촌교회 담임으로의 청빙률 높음
③	기관파송	연회의 승인절차 거친 기관 파송, 상대적으로 어려움
④	부분사역 부담임교역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통과 (2021 신설)

제47조 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③ 개체교회가 필요하여 청빙하는 경우에는 개체교회당 1명의 부분사역 부담임자를 감독이 파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은급재단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부분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은급연한, 모든 선거권을 제한한다.<신설>

제50조 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② 입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다만, 부분사역 부담임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개정>

2) 선교사 재배치 (선교지 변경)의 가능성

①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병행 가능성

근접국가의 국경지역이나 중국인 무비자 입국 지역에서 현지의 사역자를 만나 비정기적, 정기적 교체 및

사역을 이어가는 형태가 해당됩니다. (예 러시아 국경지역, 제주도, 태국 등)

* 참조: 속인주의(屬人主義)란 원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용어로서 자국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를 선교에 적용하면 속인주의 선교란 A국 국경 밖에 있더라도 A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A국 선교로 이해하는 것이다. 반면 속지주의(屬地主義)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이는 선교에 있어서, A국 선교는 A국 국경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② 속인주의 선교 가능성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에 흩어진 중국 국적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역하는 형태로서, 전 세계 인구의 3.25%인 2억 3천만 이주민 중 중국 이주민은 9천 3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속인주의 선교에 입각하여 A국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흩어진 A국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선교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별 중국인 이민자수 현황 (CHINA DAILY 2014년 통계)

국가순위	이민자수	국가순위	이민자수
1 미국	2,247,000	6 싱가포르	447,000
2 한국	657,000	7 이탈리아	185,000
3 일본	650,000	8 방글라데시	174,000
4 캐나다	640,000	9 스페인	161,000
5 호주	447,000	10 영국	151,000

③ 화인(華人)대상 선교 가능성

화인 또는 화교인은 대만 또는 중국과 문화와 경제활동에 연관을 가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계(漢民族系)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혼혈, 동화되어 이미 지연 또는 혈연의 의식이 희박해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본국과의 연관성이 약하고 언어조차 모르는 채 현지인화 된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록 인종적으로 중국계라고 할지라도 본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화인사역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등지의 화인들은 현지 기독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존재감을 갖고 있으며,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선교사와 협력을 통해서 화교교회의 부흥과 선교 열정을 고취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④ 제3의 선교지 가능성

선교사의 재배치에 있어서 선교사가 갖고 기존의 경험과 지식과는 무관하게 제3의 선교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A국 선교사의 경우 비자발적 철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통제와 압박이 더욱 심한 나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미 1차 선교지에서 상당한 심리적,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곳, 선교사의 비자 취득이 용이한 나라, 경제적으로도 선교사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필리핀, 캄보디아, 조지아, 아프리카 국가 등)

⑤ 국내이주민선교사 가능성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통하여 감리회는 전격적으로 국내이주민선교사 자격을 신설하고, 선교사도 국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리회 국내이주민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계선교사관리규정

제4조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⑧ 국내이주민선교사 <신설>

1. 본부 파송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자
2. 국내 이주외국인(탈북자는 제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자
3. 선교자자격인준심사에 재심의로 통과된 자

4. A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모색

1) 향후 5년은 A국 선교를 위한 전환기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중국 선교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A국 선교의 가장 큰 위기는 예측 불가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정책과 실행이 지속되고, 시진핑의 종신집권이 가시화되면,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는 타의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에 마지막 한 가정이 남을 때까지 본토를 기반으로 한 선교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한국 감리회에 맡기신 남겨진 선교적 과업임을 확신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본토 선교를 이어가는 반면, 중국 선교 전환기를 맞을 앞으로의 5년은 감리회 중국 선교에 있어서 많은 시도와 도전,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즈니스선교(Business as Mission)가 전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비자의 문제는 선교사의 체류와 직결된 것으로, 안정적인 장기비자의 취득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A국의 경우,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인교회를 법인으로 신청하여 비자를 받는 경우 외에는 불가하며, 그동안 선교사들의 장기체류의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었던 학생비자도 나이의 제한 등이 적용되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A국 체류가 가능하고, 그나마 안정적인 것은 바로 비즈니스(사업)비자입니다. 예전에도 선교사들이 신분을 속이는 방법으

로 ‘페이퍼컴패니’의 사원으로 비자를 신청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실제적인 비즈니스 수행과 수익을 창출하는 근거가 없이는 비즈니스비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의 경우, 선교사 또는 교역자가 목회와 말씀 전도에 집중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에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세계선교 상황은 선교사가 장기적인 비자, 그것도 종교 활동을 허락하는 비자를 발급받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은 선교사의 사활을 위협하는 압박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A국 선교를 지속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비자 취득에 있어서 비즈니스비자의 취득을 적극 권면하고, 이를 위해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준비를 권면할 계획입니다. 즉 비즈니스비자 취득을 위한 선교사의 전문 직종 자격증 취득 및 경력개발, 파송교회의 초기 투자금에 대한 예산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A국 선교사는 지리적 선교가 아니라 공간적 선교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감리회 선교는 이제 더 이상 A국은 국경에 갇혀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중국인이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A국은 본토를 가리키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중국인이 흩어져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직업과 생활을 위해 떠난 중국인들이 사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감리회 선교에 있어서 나라의 국경을 기준으로 선교사를 구분하던 그간의 개념을 탈피하는 과감한 시도가 될 수 있겠으나, 속인주의 선교의 적용이 없이는 달라진 중국 선교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중국 선교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4) A국 선교사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성실한 사역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A국 선교사 중 현재 비자가 있거나, 코로나 종식 후 단기 관광비자라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84가정 중 69가정에 이릅니다. 선교국은 장기 체류가 어려운 선교사가 단기 방문하여 사역지를 대면하여 돌보고, 본국이나 제3국으로 돌아가서 비대면 형태의 사역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허용하되, 이러한 유동적 사역이 단발성과 임시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도록 선교사가 부단히 노력할 뿐 아니라, 비대면 사역을 위한 기술과 보안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소속교회와 선교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역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